



■ 존 베벌리와 저항의 포스트모더니즘

김 동 환

지난 5월 13일,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에서는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연구(Latin American Subaltern Studies)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존 베벌리 교수(미국 피츠버그大)를 초청하여 “라틴아메리카니즘¹⁾이라는 ‘사건’: 인식지도 그리기”라는 주제로 석학강좌를 개최하였다. 본고에서는 베벌리 교수의 학문적 여정과 이번 강연을 통해 내어놓은 주장을 정리하고 이러한 주장이 지니는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존 베벌리의 이력을 살펴본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러한 궁금증을 가질 될 것이다. 공고라의 『고독 Soledades』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스페인 황금세기문학을 가르치던 미국인 교수가 어떻게 하위주체연구라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1) 베벌리는 라틴아메리카니즘을 지역에 상관없이 학문적으로 생산된 라틴아메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이론적·비판적 담론으로 규정한다.



지난 5월 13일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주최의 '석학강좌'에 참석한 존 베벌리 교수

학문분야의 대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대답으로 그는 자신이 '68세대'의 일원이라는 사실부터 밝힌다. 그에게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는 루이 알튀세의 '이론적 실천'이라는 제안이 제기되고 통용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개인적으로도 미국의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비평가인 프레드릭 제임슨 밑에서 다른 동료학생들과 그룹스터디를 하면서 문학텍스트 내부에 작동하는 역사와 이념의 힘과 사회적 현실을 (재현한다기보다) 구성하는 문학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가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샹탈 무페(Chantal Mouffe)와 에르네스토 라클라우(Ernesto Laclau)의 저작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²⁾

스페인 황금세기문학을 전공한 그가 라틴아메리카문학으로 관심을 확장하게 된 데는 프레드릭 제임슨 밑에서 같이 공부를 하던 벗이자 동료학자인 마크 짐머만(Marc Zimmerman)의 도움이 컸다. 중앙아메리카문학 전문가인 짐머만은 베벌리에게 중앙아메리카의 혁명운동을 소개하고 이 혁명운동과의 연대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는 혁명운동과정 속에서 문학의 역할이라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운동과정에서 에르네스토 카르테날의 시작품이 이념과 정치적 동원의 표현으로서 어떻게 기능하였는가라는 문제였다. 이러한 관심과 지속적인 연구 작업은 중앙아메리카 사회에서 사회적·이념적 제도로서 문학이 어떻게 기능하였는가라는 문제로 확장되었고, 1990년에 출간된 『중앙아메리카 혁명 시기의 문학과 정치 Literature and Politics in the Central American Revolutions』로 결실을 맺게 된다. 그러나 이 저서는, 베벌리의 말에 따르면, 출간 바로 직전에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정권이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재고 도서 선반으로 향하는 신세가 되었다.³⁾

1990년 산디니스타 정권의 대선 패배는 베벌리의 지적 여정에 있어 대전환점이 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는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기획이 한계에 도달하였고, 변화된 세상에 적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가 남아시아 하위주체연구그룹(South Asian Subaltern Studies Group)의 저작들을 접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무렵이었다. 그리고 1992년 그와 일

2) John Beverley, "Preface" in *Against Literatur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3, pp. viii-ix.

3) John Beverley, "Preface" in *Testimonio: On the Politics of Truth*,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4, p. xi.

레아나 로드리게스(Ileana Rodríguez)의 주도로 당시 각자 다른 경로를 통해 남아시아의 하위주체연구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비공식적인 첫 모임을 개최했고, 이것이 바로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 연구그룹의 시작이었다. 이들은 라틴아메리카에서 혁명적 좌파 기획의 실패를 포스트모던(postmodern) 시기에 도래한 ‘메타서사의 종언’으로 이해하고, ‘우리시대의 전략’으로서 기존의 합목적론적인 인식틀에서 벗어나 포스트콜로리얼적(postcolonial)이고 하위주체적(subalternist)인 관점에서 라틴아메리카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방향은 민중의 목소리를, 타자성을 제대로 재현해 낼 수 없는 기존 문학형식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이러한 문학의 위기를 벗어나 사회사를 천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이 증언서사(testimonio)에 개념적이고 전략적인 중요성을 부여한 것은 바로 이 장르가 문학의 생산과 수용에 내포된 부르주아적 주체성을 축출하고 탈중심화하며 일종의 ‘해체’적 방식으로 인문학을 급진화하면서 하위주체의 목소리가 실재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생각에서 기인한다. 또한 증언서사는 문학과 국가 간의 관계를 문제 삼기도 하고, 그 생산방식의 특성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좌파정당 또는 좌파운동의 가능성, 즉 동맹정치(politics of alliance)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여기서 문학과 국가 간의 관계, 또는 더 넓게 봐서 문화와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는 ‘문화연구 cultural studies’라고 부르는 학문의 등장과 관련이 있다. 70년대에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기술관료주의적 군부독재가 횡행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로 사회과학분야에서 문화에 새로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극명하게 나타난 경제적 근대화와 정치적 민주화의 불일치는 문화, 윤리, 이데올로기, 정치, 법 등과 같은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연구진과 존 베벌리 교수 내외(가운데)

상부구조의 상이하고 비동시적인 영역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구조적 인과관계에 질문하도록 이끌었다. 이러한 질문은 개인적 주체성과 집단적 주체성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종교적·언어적·문화적·인종적 이질성에 관용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의 정치적 결과가 바로 새로운 사회운동, ‘정체성 정치 identity politics’에 대한 관심의 증가였다.

역설적인 것은 문화와 정체성 정치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면서 문학이론과 문학비평이 전통적으로 사회과학에 의해 지배되어 온 라틴아메리카연구의 개념적 전위로서 기능하게 된 점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전통적인 분과학문 간의 구분을 적극적으로 전복시키는 초분과학문적(transdisciplinary)이고 상호분과학문적(interdisciplinary)인 유목적 학문(nomadic science)의 실천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베벌리는 최근의 문화연구는 초기의 의도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그는 처음에는 ‘초상화’(portrait, 재현)였던 것이 ‘위임장’(proxy, 대의)으로 바뀌었다는 가야트리 스피박의 비유를 빌려 처음에는 자본과 근대국가의 논리를 부수거나 초월하는 것으로 보이던 것—문자도시(Lettered City)와 헤게모니적 교육문화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화적 이질성의 확산—이 다시 국가이성과 국가이성에 대한 학문제도의 협력이라는 문제가 되어버렸다고 선언하였다.⁴⁾ 그가 보기에 문화연구의 탄생 자체가 하나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상부구조 효과이기 때문에 경제적 세계화, 매스컴, 신자유주의적 에토스가 야기한 상품화된 문화의 흐름과 종종 공모관계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문화연구에 대한 이러한 비판으로 베벌리는 최근 한 학술저널에서 과테말라 학자 저널리스트 마리오 로베르토 모랄레스(Mario Roberto Morales)와 논쟁을 벌였다.⁵⁾ 베벌리는 글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문학비평과 문화비평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보수주의적 전환’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우선 그는 현재의 신보수주의적 전환을 라틴아메리카가 세계화 흐름에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부구조 효과로 평가한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및 교육개혁과 상업적 대중문화의 확산에 의해 전통적인 문화적 권위와 이를 대변해 온 전통적 지식인의 특권이 손상을 입었다. 한편 이렇게 권위를 박탈당한 지식인계층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저항하는 이질적인 민중적·하위적 주체의 정치적 분출에

4) John Beverley, “La persistencia del subalterno”, *Revista Iberoamericana*, Vol. LXIX, Núm. 203, Abril-Junio 2003, p. 337.

5) 베벌리와 로베르토 모랄레스의 논쟁에 관해서는 이성훈, 「학술동향: 라틴아메리카에서 하위주체는 말할 수 있는가?」, 웹진 《트랜스라틴》 5호, 2009년 1월. 참고.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움직임 또한 전통적 지식인의 해석적 권위를 박탈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장논리와 지배이데올로기의 환상에 대한 비판적 전망을 작성하고 대변하며 공식화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전통적 지식인이라고 생각한다.⁶⁾ 따라서 신보수주의적 전환은 본질적으로 라틴아메리카 ‘문자도시’의 부흥을 지향한다.

베벌리는 최근에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거의 동시적으로 좌파정권이 탄생한 상황, 소위 분홍물결(pink tide)을 하나의 사건(event)⁷⁾으로 이해하며, 이러한 좌파의 승리를 가능하게 만든 요인으로 라틴아메리카의 하위주체적이고 민중적인 사회운동을 꼽는다. 또한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모델의 헤게모니는 전지구적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이 위기국면에서는 이론적·비판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대안은 하위주체-민중의 생생한 경험으로부터 새로운 헤게모니를 만들어 내는 것, 다시 말해서 ‘민중국가’(people-state) 건설이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베벌리는 ‘저항의 포스트모더니즘 postmodernism of resistance’의 가능성을 믿으며, 라틴아메리카니즘 역시 이러한 가능성의 한 형태라고 말한다. 물론 이 시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60년대의 급진적인 약속 대신 신자유주의를 경제적 축으로 삼는 보수주의의 부흥을 선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모든 불평등과 불의가 사라진 사회, 차이가 평등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며 마르

6) John Beverley, 2003. “La persistencia del subalterno”, *Revista Iberoamericana*, Vol. LXIX, Núm. 203, Abril-Junio 2003, pp. 338-339.

7) 여기서 ‘사건’은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 바디우의 용어를 차용한 것으로, 갑작스럽고 예측불가능하며 우발적이고 급진적으로 중층결정되는 한편, 모든 새로운 가능성과 결정의 길을 열어놓고 있는 무엇을 의미한다.

크스의 ‘늪은 두더지’⁸⁾처럼 라틴아메리카 좌파의 부활에 기운을 북돋아 주고 있다고 확신한다.□

참고문헌

- 이성훈. 2009. 「학술동향: 라틴아메리카에서 하위주체는 말할 수 있는가?」, 웹진 《트랜스라틴》 5호(2009년 1월).
- 제프 일리. 2008. 『The Left(1848~2000) - 미완의 기획 유럽 파의 역사』, 유강은 옮김, 뿌리와이파리.
- Beverly, John. 1993. *Against Literatur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3.
- _____. 2003. “La persistencia del subalterno”, *Revista Iberoamericana*, Vol. LXIX, Núm. 203. Abril-Junio 2003.
- _____. 2004. *Testimonio: On the Politics of Truth*.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김동환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간사

8) 혁명에 대한 은유로서, 영국에 망명 중이던 마르크스가 대영박물관에서 전유럽에서 혁명에 대한 희망을 끈을 놓지 않으며 혁명이라는 ‘늪은 두더지’가 아직도 확실히 ‘땅을 파헤치고’ 있는 역사의 지하작용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일화에서 유래되었다. 제프 일리. 2008. 『The Left(1848~2000) - 미완의 기획 유럽 파의 역사』, 유강은 옮김, 뿌리와이파리. 77~78쪽 참조.